



다시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배포 : 2024년 11월 25일(월)

尹 대통령, 말레이시아 총리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(11.25)

- 「한-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」 채택 -
- ▲ 국방·방산 ▲ 무역·투자 ▲ 에너지·기후변화대응 등 협력 강화 -

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11/25, 월)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「안와르 이브라힘 (Anwar Ibrahim)」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,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

양 정상은 196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, 양국 간 협력을 심화,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「한-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」을 채택했습니다. 또한, 양 정상은 동 성명에 따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<전략적 동반자 관계>를 수립했음을 공식 선언했습니다.

대통령은 2022년 체결된 「한-말레이시아 국방협력 MOU」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·방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지난해 한국형 경공격기(FA-50) 수출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와르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 이에 대해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믿음직스러운 안보 파트너임을 강조하고, 앞으로 한국과 방산 및 공동훈련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.

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올해 양국 간 FTA 협상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고, 디지털,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FT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아울러, 양국 간 인프라 분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

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.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되는 「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(CCS) 협력 MOU」와 「과리협정 제6조 협력 MOU」를 토대로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에 박차를 가하자고 했습니다. 안와르 총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특히 청정 수소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인 만큼, 이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.

또한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되는 「고등교육 협력 MOU」를 통해 양국 간 교육협력 및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. 특히, 안와르 총리는 한국의 성장과 성공을 배우자는 <동방정책>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AI와 디지털 분야가 접목된 교육·훈련 프로그램을 한국이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. 또한, 말레이시아인들 사이에 한국 문화(K-Culture)의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, 관광 교류도 증대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.

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과 전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. 안와르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북한의 핵·미사일 프로그램과 각종 도발행위를 규탄하고, 우리 정부의 <담대한 구상>과 <8.15 통일 독트린>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했습니다.

양 정상은 내년 APEC 의장국인 한국과 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가 양 정상회의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<끝>

※ 양국 정상 임석 하 교환한 문서(총 3건)

-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말레이시아 정부(경제부) 간 「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(CCS)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」
- 대한민국 환경부와 말레이시아 정부(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부) 간 「파리협정 제6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」
- 대한민국 교육부와 말레이시아 정부(고등교육부) 간 「고등교육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」